

농어촌공 수리관리원 운영 '눈 뜬 장님'

퇴직자 출신 타인 명의 계좌로 10년간 수당 착복했지만 감감히 감사실, 비위 행위 명백하게 규명 못해...5년 치만 '환수 조치'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 출신이 10년 동안 '수리시설 관리원'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착복해 온 것으로 드러나 탈영이 일고 있다.

17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수리시설 관리원은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관리를 위해 공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위촉 직이다.

매년 영농이 개시되는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10월까지 약 6개월씩 고용한 뒤 곧바로 해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저수지, 농수로 등 주요 수리시설 관리와 농업용수 공급 장애 발생 시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일을 맡고 있다.

문제는 나주시에서 불거졌다. 수리시설(유지)관리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강모씨가 지난 2008년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잘 아는 지인 이모씨와 김모씨를 '수리시설 관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이들을 앞으로 지급된 수당을 착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가 10년간 착복한 금액은 2000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의 첫 비위 행각은 퇴직 후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말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수리시설 업무보조와 현장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시절부터 시작됐다.

그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6년 동안 이모씨를 수리시설 관리원으로 등록하고 매년 적게는 56만원에서 많게는 220만원 씩 총 557만여원을 착복했다.

명외와 계좌를 빌려준 이모씨에게는 매달 2만~3만원의 수교비만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씨의 수당 도둑질은 여가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약직 채용 기간이 만료되자 본인이 2014년부터 나주시의 수리시설 관리원으로 다시 취직해 이모씨에 이어 김모씨까지 끌어들여 명외를 빌린 뒤 5년 동안 수당을 챙겨왔다.

이 기간 동안 착복한 수당 1610여 만원은 최근 공사 감사실이 감사를 벌여 환수조치 했다.

그러나 감사실도 강씨의 비위 행각을 명백하게 규명하지 못했는지 앞서 6년간 착복한 수당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은 나주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관리원 채용과 수당지급, 근무감독 권한을 가진 나주시 담당자는 '10년이 넘어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착복'한 수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의 수리시설 관리원 관리가 주먹구구에 엉망인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강씨가 수리시설 관리원을 허위로 등록할 수 있었던 것은 '형식적이고 허술한 서류제출' 업무 시스템

이 크게 한몫했다.

그가 10년간 명외를 빌려 쓴 이모씨의 경우 매년 공사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는 '수리시설 관리원 동의서'를 강씨가 대신 작성해 9년 동안 제출했지만 누구하나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라 채용했는데 믿는 도

끼에 발등을 찍힌 꼴"이라며 "부정하게 착복한 수당은 추가 환수 조치하고 앞으로 수리시설 관리원 운영에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도인 전남에서 공사가 올해 위촉한 수리시설 관리원은 1540명에 이들에게 지급된 활동 수당은 42여 여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불거진 나주시 담당구역에서는 총215명이 수리시설 관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은홍 기자



남북정상회담으로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중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는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랩핑이 돼 있다.

광주 '레지오넬라 주의보' 전년보다 2배 이상 검출

올해 6~8월 96건 검출

광주지역 레지오넬라균 검출 건수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해 보건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7일 "레지오넬라균 검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과 병원, 백화점 등 대형건물 냉각탑수에 대한 소독과 청소 등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부터 광주시 건강정책과, 5개 자치구 보건소 등과 협조해 광주지역 대형건물 냉각탑수를 비롯해 병원, 사우나, 숙박시설 등 시민 다중이용시설의 냉·온수 시설 분수대 등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오염도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8월까지 총 595건을

검사해 96건(16.1%)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102건 중 13건(12.7%), 7월 265건 중 30건(11.3%), 8월 228건 중 53건(23.2%)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같은 기간 505건 중 29건 검출(5.7%)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레지오넬라균이 가장 많이 검출된 장소는 시민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목욕탕욕조 운수였으며, 대형건물은 냉각탑수로 분석됐다. 육조 운수의 경우 전체 34건 중 15건(44.1%)이, 냉각탑수에서는 전체 87건 중 32건(36.8%)이 검출됐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대형 건물 냉각탑수와 목욕탕 운수시설 샤워기 등의 오염된 물에 있던 레지오넬라균이 비말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된다. 면역

저하거나 흡연자 등 고위험군에서 발병률이 높으며, 아직까지 사람 간 전파 보고 사례는 없다.

임상증상은 역학적인 특징에 따라 독감형과 폐렴형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발병률이 높은 독감형은 감기와 비슷해 증상이 경미한 반면 폐렴형은 고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며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치명률이 15~30%에 달한다.

서진중 감염병조사과장은 "레지오넬라균은 환경에 상재하는 균으로 소독과 청소 등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가정에서도 에어컨필터 청소 등 환경을 청결히 해 레지오넬라증 예방하고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를 의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관 먹살잡고 발길질 30대 취객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3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30분께 광주 북부 두암동 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B(46) 경위의 먹살을 잡아 혼든 뒤 발길질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경찰관이 '자신에게 귀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서 차량 전복 40대 운전자 숨져

광주 한 교차로에서 차량 전복사고로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51분께 광주 북부 용진동 모 교차로에서 A(48)씨가 몰던 SUV가 중앙분리대 오른쪽 기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뒤집힌 SUV에서 구조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 사는 A씨가 지리·운전 미숙 등으로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축구공 왜 치" 초등생 뺨 때린 40대 여성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7일 축구공에 맞았다는 이유로 공놀이를 하던 초등학생을 때린 혐의(폭행)로 A(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에서 B(11)군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에 사는 A씨는 놀이터 주변을 지나가다가 B군이 찬 축구공에 맞은 뒤 분풀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명동 실탄사격장서 30대 남성 총기 사망

서울 도심의 한 사격장에서 30대 손님이 자신이 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8시께 서울 중구 명동의 실탄사격장에서 홍모(36)씨가 스스로 쓴 총에 맞아 숨졌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분석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CCTV에 따르면 홍씨는 안전규정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직원과 함께 사포(射靶)로 들어갔고, 동행한 직원은 총을 체인으로 된 장치에 고정했다.

홍씨는 풀린 가지고 온 전기충격기로 종업원을 공격했다 이에 놀라 종업원이 도망가자 사대로 올라가 자신의 목에 총구를 겨눴다.

해당 시설은 안전규정에 따라 총구의 방향을 바꿀 수 없도록 고정된 상태였다. 이달 초 경찰의 안전 점검도 받았다.

필리핀 출국 휴대폰 판매 사기친 30대 구속

도박 자금을 모으기 위해 온라인 휴대폰 사기 판매로 약 3억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공문서 부정행사, 상습 도박 등 혐의로 A(33)씨를 필리핀에서 검거,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온라인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중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14년 7월 필리핀으로 출국,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범행을 이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6월까지 피해자 800여명으로부터 총 3억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금융 계좌나 휴대전화 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약 1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운전면허증을 전수 받아 도용하기도 했다. 또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대포통장 계좌를 입금계좌로 이용,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A씨에게 송금한 돈이 전액 도박에 사용되었으며 A씨는 이 금액을 바탕으로 도박을 해 탄 돈까지 총 3억7000만원을 생활비 및 유증비로 탕진했다고 설명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이농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문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이농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